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 세션 13, 성 윤리학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3, 성 윤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성 윤리에 주의를 돌려봅시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성 행위에 대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철학적, 신학적 가치가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가 , 그리고 동성애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의 관대한 성에 대한 견해로 여겨지는 것과 20세기에 살았던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몇 가지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1930년대에 새로운 성 윤리를 제안하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의 견해가 당시에는 매우 급진적이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당시의 다른 철학자들 중에서도 버트런드 러셀이 어떻게 서양에서 성적 취향과 성적 행위에 대한 견해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러셀이 지지하는 것 중 하나는 혼전 성관계입니다. 그는 이전에 성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단순한 신체적 매력과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종류의 호감을 구별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전 성관계를 지지합니다. 그는 또한 쉬운 이혼을 지지했는데, 쉬운 이혼은 매우 어려웠고, 아시다시피, 1930년대 무과실법 등이 생기기 전에는 달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혼은 부부의 상호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 성적 도덕성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겼고, 실제로는 겸손과 질투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 특정 에세이를 결론짓고, 그가 말했듯이,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에서 관용, 친절, 진실성, 정의라는 평범한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성적 도덕성에 대한 일종의 미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록에서 빠진 몇 가지 중요한 미덕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성적 행동 분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특히 순결과 충실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 성적 도덕성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고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성적 순결과 충실함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하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성적 도덕성에 더 부합하는 또 다른 방향은 토마스 메이프스라는 사람이 발전시키거나 옹호한 것으로, 접근 방식이 칸트적입니다. 토마스 메이프스라는 사람은 칸트 윤리의 특정 측면을 성 윤리에 적용하고, 특히 칸트의 범주적 명령의 두 번째 버전을 적용하는데, 이는 우리가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칸트의 윤리에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메이프스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성적으로 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누군가를 성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성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자발적인 정보 제공 동의라는 개념이라고 지적합니다.

누군가를 성적으로 이용할 때, 그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세요. 즉, 그들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것이 훼손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지적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빼앗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압이나 속임수를 통해서입니다.

사람이 강압당하면, 그것은 그들의 자발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면, 그것은 그들의 정보 제공자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압과 기만.

Mapes는 어린이 또는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는 성인과의 성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요점은 또한 북미 남성-소년 사랑 협회인 NAMBLA를 비난하는 듯합니다. 이 협회는 모두 동의 연령 법률을 없애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의미심장하게도 Russell의 윤리는 반드시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듯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정보를 숨기는 고의적인 기만의 모든 형태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례이며 따라서 부도덕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한다고 말하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이 독신이라고 말하거나,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HIV 양성이라는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기만이며, 따라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위반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만은 어떤 형태를 띠까요? 방금 언급한 것 외에도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 밖의 다른 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사람이 강요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물론 전형적인 예는 강간이고, 그것은 신체적 강압입니다. 하지만 성적 강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MAPES는 두 가지 종류의 성적 강압을 구분합니다. 현재 강압은 직접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성관계로 강압하기 위해 해를 끼칠 것이라는 위협을 사용하는 성향적 강압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적 종류의 강압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MAPES는 위협과 제안을 구분합니다. 위협은 불이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제안은 준수가 바람직한 결과, 즉 유인을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그는 교수가 한 사례에서 여학생에게 “나랑 섹스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질 거야”라는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건 위협입니다. 학생을 강요하는 데 사용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니면, 이런 맥락에서 더 흔할 수도 있겠지만, 제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A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섹스에 대한 유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일종의 기질적 강압입니다. 제안에도 암시된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 기질적 강압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방식입니다.

좋아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 윤리를 성생활에 적용한 로저 스크루튼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은 일부일처제 결혼에서만 적절하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스크루튼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성 윤리가 될 성적 도덕성을 지지합니다.

그는 에로틱한 사랑이 인간의 웰빙이나 행복에 기여하는 일종의 미덕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신의 삶에 에로틱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전반적인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덕이 있고 에로틱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것은 일부일처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크루튼은 그것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첫째, 에로틱한 사랑은 결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질투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덕행적 삶은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서약, 엄숙한 헌신의 서약인데, 물론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또한 결혼 서약에 제약되지 않는 성적 표현은 자신의 전체 자아를 표현하는 적절한 역할과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헌신 없이 성적 열정의 습관이 있는 곳에서 헌신의 유입이 열정을 몰아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결혼 후에 섹스가 있습니까? 라는 범퍼 스티커를 한 번 봤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그 범퍼 스티커는 어떻게든 결혼에 대한 헌신이 에로틱한 열정을 파괴한다고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생활은 결혼에 대한 헌신으로 제약받지 않는 것입니다.

스크루튼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에로틱한 사랑과 열정적인 섹스 라이프를 위한 최고의 장소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건강합니다. 스크루튼은 질투의 문제는 헌신의 서약을 통해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에서만 섹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데에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경험적 사실이 이를 확인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일처제 커플이 성적으로 더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조사에 따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꽤 널리 알려졌던 한 연구에서 보수적인 기독교 여성이 가장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대중 문화에서 기대하지 못한 일이며, 특히 어떤 종류의 결혼 의무 밖에서도 자유로운 사랑과 자유로운 섹스를 찬양하는 할리우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 동거하는 커플의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버트런드 러셀의 생각, 즉 결혼 전에 함께 살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사실, 결혼 전에 같이 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거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Waite와 Gallagher라는 두 작가의 글입니다. Maggie Gallagher는 성에 대한 많은 기사를 쓰고 출판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평균적으로 동거하는 커플은 성적으로 충실하지 않고, 덜 안정된 삶을 살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적고, 폭력적일 가능성이 더 높고, 수입이 적고, 결혼한 커플보다 덜 행복하고 덜 헌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혼 외의 성관계의 괴물성은 그것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성적 결합이라는 한 종류의 결합을 그것과 함께 하고 완전한 결합을 구성하도록 의도된 다른 모든 종류의 결합에서 분리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CS 루이스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흥미롭고 중요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부일처제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결혼으로 서로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은유는 실제로 은유 이상인 듯 보이는데, 바로 이 한 몸이라는 구절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말했듯이, 주님은 아담이라는 남자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 이브를 만드셨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아담이 말했듯이, 내 살 중의 살, 내 뼈 중의 뼈. 이것이 두 가지 인간적 성별의 기원이며,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에 대해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합하셨으니 아무도 갈라놓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통하지 말라는 성경적 명령은 십계명인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은유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이 깊은 형이상학적 결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그 은유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단지 결혼과 일부일처제의 중요성을 강화할 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적 순결의 중요성, 성경적 관점에서 성적 순결의 중요성은 경전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와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순결에 진정한 프리미엄을 둡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이고 성전이며, 내 몸이 성령의 성전인데, 왜 창녀와 연합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의 주석을 참조하세요. 인간의 성행위와 생식에 대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서 나오고, 그 세 분이 같은 본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고전적인 기독교 신조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결합에서 성령이 영원히 나옵니다. 삼위일체의 이 세 인격과 성령은 이것 때문에 덜 신성하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본성을 공유합니다. 글썄요, 여기서 평행을 주목하세요.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에서 덜 인간적이지 않고, 인간 본성을 공유하며, 동일한 인간 본질을 가진 아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행렬, 즉 아버지와 아들의 결합에서 나온 성령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에서 나온 아이로서의 인간의 번식 사이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일 뿐일까요? 아니면 인간 본성과 인간 가족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형이상학적 사실일까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번식의 신성함을 실제로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성애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Scott Ray는 동성애라는 용어가 유행이나 대중적 사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현재 선호되는 용어는 동성에게 끌리는 것 또는 동성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는 모호합니다. 우리는 성적 반전을 가진 사람, 즉 스콧 레이의 용어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성별에

끌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반면, 상황적 동성애자, 즉 동성애적 경험, 동성 성적 경험을 했지만 우세한 끌림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향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용어 자체는 약간 모호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구분은 동성애적 끌림과 동성애적 실행 사이의 구분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적 활동이나 행동에 연루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끌리지 않을 수도 있고, 동성적인 방식으로 끌렸지만 동성애적 관행에 연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의 원인에 관해서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동성애적 성향은 유전적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입니까?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뇌에 대한 많은 신경해부학적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가장 흥미롭고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연구는 유전적 연구, 특히 일란성 쌍둥이 간의 일치율을 조사하는 쌍둥이 연구입니다.

일치는 일란성 쌍둥이의 성적 지향에 대한 유사성 또는 동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완전히 유전적 원인이라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 100% 일치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자랐거나 입양된 쌍둥이에게도 사실이어야 합니다.

초기 연구 중 일부는 100% 일치율을 발견한 프란츠 칼만이라는 연구자가 수행했지만, 그의 연구는 전면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첫째, 피험자가 모두 기관에 수용되었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에 입양된 쌍둥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 연구는 10~50%의 일치율만을 발견한 후속 연구에도 불구하고 종종 확정적인 것으로 인용됩니다.

동일한 개체 의 일치율이 50%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수치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개체 의 일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

그들은 유전학이 한 가지 기여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으로는 일치하는 쌍둥이가 연구 광고에 더

자주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두 쌍둥이의 성적 지향이 직접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King과 McDonald가 수행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Bailey와 Pillard가 발견한 것보다 낮은 일치율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실수로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성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말합니다.

동일인 사이의 일치율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초기 연구자들이 근친상간의 역할에 대해 이론화했던 것을 확인해줍니다. 따라서 매우 임시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계속되는 논쟁이지만, 동성애적 성향에 관해서는 유전학이 유일한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치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특성에 대한 선택적 압력을 감안할 때, 미시 진화적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선택적 압력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거듭해서 갱신하기 위해서는 유전되지 않는 요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환경적 요인이 등장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아마도 30~50%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고, 환경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종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동성 부모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발달적 도전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윤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대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적 지향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엄격한 결정론자가 아니라면 윤리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경한 결정론이란, 모든 인간의 선택은 원인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 또는 심지어 생물학적, 환경적 결정 요인이 특정 성향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마치 유전적으로 알코올 중독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형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8년 동안 술을 끊었고 , 그는 자유롭게 금주를 선택합니다. 그는 그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는 인과적 영향이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동성애적 매력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성향에 따라 행동할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연민과 민감성을 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끌리는 매력이나 성향.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동성애 또는 동성 행위에 대해 어디에서 언급하며, 정확히 어떻게 언급합니까?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동성애 행위를 포함한 성적 부도덕 때문인 듯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그것이 창세기 19장의 내러티브에 암시적으로만 나타나더라도 분명히 밝힙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킨 이유가 그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두 구절 모두 남성 간의 성관계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언급하고, 후자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1:8-10과 고린도 전서 6:9-11에서 두 구절 모두 동성애 범죄자를 각각 법을 어긴 자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로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논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24-27절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부자연스러운 관계와 음란한 성적 행위를 비난합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해 더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 해석을 제시했으며, 여기 그 대안적 해석 중 일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단지 동성애적 남성 매춘을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동성애적 활동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바울이 동성애적 행위에 참여하는 진정한 이성애자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이성애적 방식으로 지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적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부자연스러울 것이고, 동성애적 방식으로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해석에 따르면 모든 동성애적 활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헌신적인 동성애적 관계가 아닌 동성애의 변태적 표현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난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동성애적 음란함이며, 이 해석에 따르면 그가 묵인하거나 승인할 것은 일부일처제적 동성애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표준적인 역사적 전통적 해석은 바울이 남성 매춘과 관련이 있든 없든, 자연스러운 성향이나 욕망에 부합하든 없든, 헌신적인 일부일처제 관계의 맥락에서든 아니든 모든 동성애적 행동을 정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Scott Ray가 이 점에 대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없는 것을 구절에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학문을 살펴보면, 어떤 학자들이 이러한 대안적 해석을 어떻게 옹호했는지 알 수 있는데, 항상 최상의 경우에도 매우 억지스럽고, 이 구절에 없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본 가장 좋은 자료 5가지, 특히 동성애와 결혼,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Anderson, George, Gerges는 *What is Marriage? Man and Woma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 문제를 변호하는 훌륭한 책입니다.

케빈 드 영의,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로버트 개그넨, 이것은 아마도 영어로 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처리일 것입니다, *성경과 동성애적 관행, 텍스트와 해석학*. 로버트 라일리의 *Mak*

*ing Gay Okay. How Rationalizing Homosexual Behavior is Changing Everything*은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문화적 연구입니다.

제가 인간의 성에 관해 읽은 가장 좋은 책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신체 신학*입니다.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실 저는 일부만 읽었지만, 크리스토퍼 웨스트의 책인 *초보자를 위한 신체 신학*은 읽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방대한 대작에 대한 좋은 소개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성에 관해 쓰인 최고의 글이라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한 주장이지만, 저와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특정 책에 대해 쓰여진 내용도 많습니다. 온라인에 접속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신체 신학에 대한 매우 유용한 메모를 찾을 수 있는데, 그의 요점을 20~30 페이지로 요약한 유용한 내용이지만,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는 인간, 인간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에 근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적어도 삼위일체는 성적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요.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의 글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성 윤리입니다.